



조간 제7980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음력 10월 19일)

저마다 ‘내가 진짜 일꾼’...요동치는 호남 민심

6·3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선거전도 본격 접화되고 있다.

특히 여권의 심장부인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만큼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공식 속에 입지자들의 공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도 막바지에 달하고 있고, 각 정당도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선거 열기는 후끈 달아 오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2·8·9면

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구청장 및 시장·군수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으면서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먼저 광주시장 선거는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민주당 소속 강기정 시장의 연임 도전에 맞서 민형배 의원, 문인 복구청장,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정준호 의원 등 5명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정의당 등에서도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후보군을 물색하면서 다자대

입지자들 출판기념회 등 ‘붐물’...선거전 본격 접화
각 정당, ‘공천 룰’ 작업 막바지...조직 정비도 속도

결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광주시장 선거는 새로운 후보 등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의 유력인사 차출설, 그리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거물급 변수’가 선거판을 흔들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남도지사 선거 역시, 3선에 도전하는 김영록 지사와 민주당 중진원들이 맞붙는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과 최근 주요 국책사업 유치로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한 김 지사에 맞서 중부권을 기반으로 한 3선 중진의 신정훈 의원, 동부권의 대표 주자인 주철현 의원,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4선 중진인 이개호 의원 등이 지역 균형 발전과 세대 변화 등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기초단체장들의 행보는 더 분주하다. 광주 각 구청장들은 물론이고 예비후보들은 최근 잇따라 책을 펴내거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자신의 출마를 공식화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을 끌어 모으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정치자금 모집 창구로 활용돼 온 점을 감안하면 이들 후보군의 행보는 향후 선거자금 마련과 세력 과시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각 정당의 광주·전남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혁신 드라이브’도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경선’, ‘혁신 공천’을 강조하며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장애인 기회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 잡음 등으로 경험한 민심 이반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이 텃밭인 만큼 ‘노 컷오프’ 기조 아래 엄격한 자격 심사와 예비 경선(권리당원 100%), 본경선(권리당원 50%+ 여론 50%)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또 강력 범죄와 성·가정·학교 폭력, 음주·행소니 등을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분류해 경선 신청 자체를 차단하는 원스 트라이크 아웃제, 현역에 대한 하위 20% 평가 등은 사실상 ‘공천 살생부’로 평가받고 있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 5일 광주 서구 화정동 서석고등학교에서 만점자 재학생 최장우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학생회 후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에서 재학생 중 수능 만점자가 배출된 것은 지난 2016학년도 수능 이후 10년 만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서석고 최장우군 ‘수능 만점’...광주서 10년만

서울대 경제학과 수시 1차 합격...“행정고시 도전할 것”

광주에서 10년 만에 고3 재학생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 ▶관련기사 10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를 교부한 결과, 광주서석고등학교 3학년 최장우군이 수능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재학생 중 수능 만점자가 배출된 것은 지난 2016학년도 수능 이후 10년만이다. 2001, 2012, 2014, 2015, 2016학년도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광주서석고는 최군의 만점으로 2001학년도 이후 4명의 수능 만점자를 배출했다.

최군은 인문사회계열로,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특히 국어영역(언어와 매체)과 수학영역(미적분), 사회탐구영역(경제, 사회·문화)에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 영역별로 가장 높은 표준점수를 받았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선택) 영역에서도 모두 1등급을 맞았다.

현재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를 지원해 1차 합격한 상태로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다.

최군은 “학교 내신과 수능 공부를 분리해 생각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채우려고 노력했다”며 “학생회 회장, 제14기 광주시고등학교 학생회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군을 지도한 정승균 담임교사는 “학원 등에 의지하기보다는 학교생활에 초점을 맞춰 꾸준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업은 물론 학생회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등 다방면으로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미래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교육계에서는 수능 전부터 최군을 유력한 ‘만점 후보’로 꼽아온 만큼 크게 반기고 있다. 특히 ‘불수능’으로 평가된 이번 수능에서 광주 학생 만점자가 나와 더욱 고무된 분위기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수학과 과학 등

전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 꾸준한 만점 후보로 언급돼 왔다”며 “지역 학생과 시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주는 성과”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최군을 포함해 전국 5명으로, 서울에서 3명(이 중 졸업생 1명 포함), 전주에서 1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수능 성적은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이므로 잘 살펴서 원하는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며 “최장우군을 비롯한 광주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발표된 수능성적을 토대로 오는 11일 오후 7시부터 광주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정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9~23일(일요일 제외)에는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고3 수험생과 학부모 등 240여명을 대상으로 진학전문교사 48명이 ‘정시모집 대비 1대1 집중상담’을 진행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서 5년간 반도체설계 전문인력 1400명 양성

이재명 대통령, 손정의 日 소프트뱅크 회장 면담

내년 광주과기원에 ‘Arm스쿨’ 설립 MOU 체결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설계(팹리스) 기업인 Arm이 광주에서 앞으로 5년간 반도체설계 전문인력 1400명을 양성한다.

이로써 광주에는 내년 Arm스쿨 설립 추진, AI사관학교 고급·심화과정 중심 개편, AI영재고 설립 가속화 등으로 한층 더 탄탄한 AI 인재양성 사다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글

로벌 반도체설계 기업인 Arm이 내년에 반도체설계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Arm스쿨’을 설치하기로 양해각사(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면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Arm스쿨’ 설치와 함께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

진하며, 후보지로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GIST에 ‘Arm스쿨’이 설치되면, 향후 5년간 반도체설계 분야 전문인력 1400명을 양성하게 된다.

Arm은 영국에 본사를 둔 모바일 반도체 설계기업으로 자체 제조 없이 라이선스와 로열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6년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인수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본사사령

△오성수 命 전무

(2025년 12월 8일자)

홍명보호,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편성... 죽음의 조 피해 ▶ 15면

컨설팅 · 설계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